

한국 반 학습 계획

일시: 2020년 10월 10일

교사: 김소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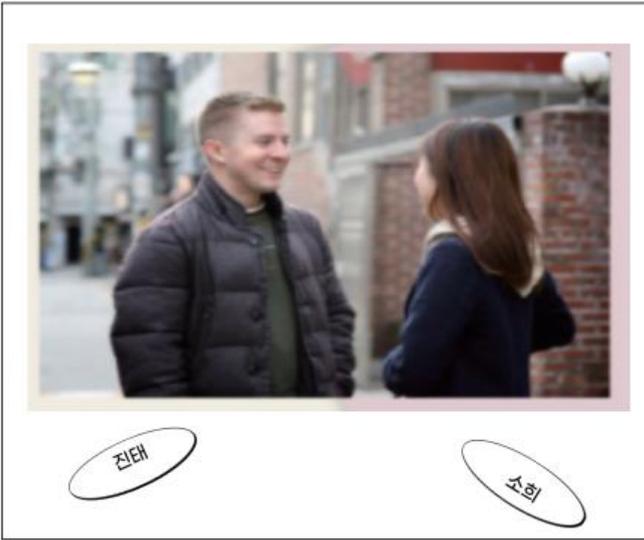
교재: 중급과정 맞춤법 & 문형 총정리(매주 제공)

교시	수업내용	수업목표/ 활동
1교시 (9:30~10:15)	출석확인(5분) 오전 특별 교육: 작문(40분)	유미선 선생님 지도
2교시 (10:15~11:00)	-기초회화 (15분)	가는 곳 묻고 답하기
	-받아쓰기(10분)	배운 문형과 표기를 생각하며 받아 쓸 수 있다.
	-르 불규칙(20)	어간의 끝소리 ‘으’가 ‘아/어’ 또는 ‘았/었’을 만나면 ‘으’가 없어지고 ‘르’이 생긴다.
3교시 (11:20~12:05)	-할수록	
	내용 익히기 읽기, 동영상 <한국문화 최고의 창작품, 한글>	-한글 창제의 배경과 아름다움, 장점 등을 배우고 우리글의 소중함을 안다 -한글 관련 어휘: 자음, 모음, 겹자음, 복자음, 발음기관, 본뜨다, 음절 -배운 문형 ‘~할 뿐만 아니라’를 사용하여 한글의 장점을 말할 수 있다.
4교시 (12:05~12:40)	주제 읽기 ‘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기(한글학자, 주시경)	-한글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-‘훈민정음’은 언제부터 ‘한글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을까? -주시경 선생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한 일의 관계를 알아본다
숙제 & 알림	1. 숙제를 할 때는 항상 수업자료를 확인하고 하기,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 하기 2. Google Classroom에 숙제 올리기(토요일 아침까지) 프린트가 안될 경우: 한국반 공책에 숙제 날짜(10월 10일 숙제), 페이지, 문제번호 정확히 쓰기 → 숙제는 항상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*선생님이 알아 볼 수 없는 글씨와 공책 사용은 숙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** 읽기 숙제 ‘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기(주시경)’ 소리내어 읽기와 ‘말하기 대본’ 카카오톡 음성메세지로 보내기 (카톡아이디: havenewdream)	

- 다음에 오는 말하기 대본을 읽어 보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보내세요. (카톡아이디: havenewdream)

가는 곳 묻고 답하기

1-02 이야기해 봐요



소희: 조진태 선생님, 안녕하세요?
 진태: 어머! 안녕하세요? 오랜만이에요.
 소희: 이 동네는 무슨 일이에요? → 이예요(x)
 진태: 저는 이 동네 살아요. 출근하는 길이에요.
 선생님은 여기 웬일이세요? 어디 가세요?
 소희: 저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.
 진태: 병원에는 왜 가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
 소희: 아니예요.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.
→ 아니예요(x)
 진태: 그래요. 잘 다녀 오세요. 오랜만에 만나서
 반가웠어요. → 오랫동안(x)
 소희: 저도요. 안녕히 가세요.

새 어휘/표현

* 오랜만, 출근, 웬일, ~ㄴ 길이에요, 편찮다(아프다), 정기검진,

가는 곳 묻고 답하기

1-02 이야기해 봐요(활용)

소희: 정태야, 안녕?
 정태: 어머! 안녕? 오랜만이야.
 소희: 이 동네는 무슨 일이니?
 정태: 어, 나 이 동네 살아. 도서관에 가는 길이야.
 너는 여기 웬일이야? 어디 가니?
 소희: 나는 보스톤 심포니 홀 가는 길이야.
 정태: 거기는 왜 가? 콘서트 보러 가는 거야?
 소희: 응, 오빠가 12학년인데 졸업 콘서트를 해서 보러
가는 길이야.
 정태: 그래. 조심해서 가고, 오빠한테 축하한다고
전해 줘.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.
 소희: 그래. 나도 반가웠어. 연락하고 한 번 만나자.

새 어휘/표현

- * 졸업
- * ~고 전해 주세요(줘)
- * 연락하다

한국반	기초 문법	'르' 불규칙
-----	-------	---------

'르' 불규칙 활용: 어간의 끝소리 '으'가 '아/어' 또는 '았/었'을 만나면 '으'가 없어지고 '르'이 생긴다.

단어	-고	A -ㄴ/은 데 V -는데	A/V - (으)니까	A-아/어서	V-았/었어요
고르다	고르고			골라서	
누르다					눌렀어요
모르다		모르는데			
부르다					
서두르다			서두르니까		
오르다	오르고				
흐르다		흐르는데			
다르다				달라서	
빠르다	빠르고				

- ()안의 단어를 문장에 알맞게 고치세요.
 - 미리는 노래를 잘 () 인기가 많아요. (부르다)
 - 출근시간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(). (빠르다)
 - 쿠바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스페인어를 () 힘들었어요. (모르다)
 - A: 지연아, 뭔가 많이 달라진 거 같은데? 머리 ()? (자르다)
B: 응. 머리가 기니까 답답해서 ().
 - 저희 어머니는 시중에 () 콩나물에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() 드세요. (팔다, 기르다)
-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.
 - 서로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.
 - 우리는 만날 때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
 - 앞머리가 너무 기니까 눈썹 바로 위까지 만 잘을 거예요.

한국반	문형	숙제
-----	----	----

- 다음에 오는 두 문장에 '~ㄹ수록/을수록'을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.

(모음+~ㄹ수록, 자음+~을수록)

<보기> 나이가 들었다.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. --> 나이가 **들수록**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.

1. 시간이 흘렀다. 모든 게 변하기 마련이다.

→

2. 아이가 자란다. 부모님의 걱정은 커진다.

→

3. 많이 바쁘다.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.

→

4.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한다. 그 피해는 사람들이 받는다.

→

5. 사랑을 나눈다. 사랑은 더 커진다.

→

6.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. 키가 크다.

→

7. 오존층(the ozone layers)이 파괴되다. 지구에 들어오는 자외선(UV rays)은 많아진다.

→

*배운 문형과 표기를 생각하면서 **받아쓰기** 연습 하세요.(띄어쓰기 확인하면서 쓰세요.)

1	오랜만이야. 여기는 웬일이니?
2	졸업 콘서트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.
3	아빠의 걷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 갈 수가 없어요.
4	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.
5	우리 형제는 모든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.
6	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변해갔다.

한국반	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지니기(한글학자 '주시경')	초등 4-1 나 읽기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- 소리내어 읽기, 카카오톡 음성메세지로 보내기(카톡아이디: havenewdream)



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.

주시경이 열두 살이던 무렵이었어요.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. 병으로 자식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.

부모님은 곰곰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집에 보내기로 했어요.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.

서울에 온 뒤 주시경은 큰 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.

열여덟 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'시경'을 알기 쉽게 풀이한 '시전'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.

“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나. ‘별목정정 조명앵앵.’”

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.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.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.

“별목정정, 나무 찍는 소리는 쨍쨍 울리고, 조명앵앵,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. 이리 쉬운 시도 풀이를 못 하다니 공부를 게을리 하였구나!”

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.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.

‘저 뜻 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 소리였다니!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,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?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!’

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.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.

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.

‘나무 찍는 소리 쨍쨍은 쨍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,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. ‘쨍쨍’과 ‘짹짹’이라고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원래 소리에도 가까운데 말이야.’

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.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 바닥에 끼적였어요. 십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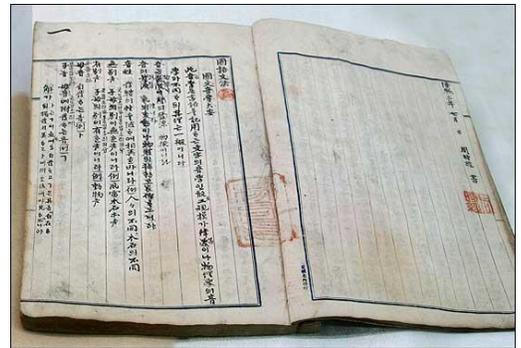
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.

1894년 열아홉 살이 된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해 지리, 수학,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**지식을 다져 나갔어요**. 주시경은 **집안 형편이 어려워** 수업이 끝나면 **인쇄소**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.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.

주시경은 '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'라는 뜻을 가진 **훈민정음(訓民正音)**을 '큰, 하나의 글'이라는 순수 한글 이름인 **‘한글’**로 바꿨어요. 세종대왕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며 고생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한 한글을 **널리** 사용하게 하는데 **앞장 섰어요**.

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**쉽게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**이 없었어요. 많은 사람이 한문 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글에는 **관심을 가지지** 않았기 때문이지요.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**마음 먹었어요**.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**마다하지 않고** 찾아갔어요. 빌려 봐야 하는 자료는 **일일이 베껴서** 모았지요.

1906년 주시경은 **‘대한 국어 문법’**이라는 책을 펴냈어요.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적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.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 **널리 알려졌어요**.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 왔어요. 이 **무렵**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.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.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 **일수록** 우리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. 1910년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**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**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.



“주 보따리 오신다!”

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. 주시경은 늘 **두루마기**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**보따리**를 들고 다녔어요. 그래서 ‘주 보따리’라는 별명이 붙었지요.

그 **보따리 안에는**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. 주시경은 우리글을 연구하는 일 **못지않게**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.

주시경은 한글 연구와 교육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일본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14년 목숨을 거두었어요.

• 수업자료에 필기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.

1. 주시경은 왜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?
2.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가요?
3. 주시경이 바꾼 우리 글의 이름 한글은 무슨 뜻인가요?
4. 주시경이 우리말 문법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?
5. 주시경에게 ‘주 보따리’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?
6. 주시경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요?
7. 주시경이 살아온 삶을 연표로 나타내 봅시다.

1876 년	
_____년부터	배재학당에 입학, 훈민정음을 한글로 바꿈
1906 년	
_____년부터	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간(한일합방) 뒤에도 한글 연구와 교육에 힘씀
1914 년	